

위기의 패밀리랜드, 활성화 어떻게... 수익성 vs 공공성

시의회 정책토론회서
전문가들 다양한 의견 개진



호남 최대 테마파크이자 추억의 쉼터임에도 시설 노후화와 운영난으로 위기에 처한 광주 패밀리랜드 활성화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수익성과 공공성을 감안한 다양한 대안이 쏟아져 나왔다.

19일 광주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 패밀리랜드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김혁 테마파크공사 대표는 "기존의 낡은 놀이기구 중심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체험·스토리·문화콘텐츠를 결합한 미래형 테마파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관광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놀이 시설'이 아닌 '경험 산업'으로 재정의하고, 광주만의 문화·관광 자산을 담은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최문용 ESG위원장은 "단기 수익성보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고려한 ESG 관점이 핵심이 되어 하고 공공시설로서의 책임, 환경친화적 운영, 시민참여 구조가 함께 설계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활성화는 어렵다"며 장기적 사회적 가치 창출을 중심으로 둔 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성장민 우치공원 관리사무소장은 현장 책임자로서 시설 노후화, 안전 문제, 이용객 감소 등 현실적인 한계를 설명했다. 그

는 "대규모 비전 제시에 앞서 시민 안전 확보와 노후시설 개선, 운영 효율성 제고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활성화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장수일 광주경실련 국장은 "단순 놀이·관광 공간으로 유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광주의 생태·문화·민주적 가치와 결합한 '하이엔드 가치 기반 관광지'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의미·감동·스토리를 중심으로 한 관광 전략을 통해 재방문과 외부 관광객 유입을 동시에 달성하

고, 도시 브랜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조석현 광주시 도시공원과장은 "우치공원과 패밀리랜드는 도시공원법 등 법·제도의 틀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한 뒤 "무리한 개발보다는 행정적·재정적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원 본래의 공공성과 시민 이용 편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실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폈다.

좌장을 맡은 조석호 시의회 예결특위

'독감 확산' 광주·전남 혈액 수급 빨간불

한파 등 두달 째 혈액 보유량 '관심 단계' 이어져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 12.5명→59.7명 급증

헌혈자가 줄어드는 겨울철에 독감 유행과 전공의 복귀에 따른 수혈 증가 등으로 광주·전남 지역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두달 째 혈액 보유량이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에 못 미치는 '관심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1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에 따르면 지난 19일 광주·전남 혈액 보유량은 3.2일분이다.

혈액형별로는 A형이 1.9일로 가장 적다. 이어 O형·AB형 2.6일, B형 6.3일이다.

혈액 보유량이 적정 혈액보유량인 5일 보다 적으면 '관심' 단계가 발령된다. 혈액보유량이 3일분 미만일 경우에는 '주의', 2일분 미만은 '경계', 1일분 미만은 '심각'으로 분류된다. 보건복지부는 각 단계별로 징후감시 활동, 협조체제 가동, 대비계획 점검, 즉각 대응태세 돌입 등의 대응에 나선다.

혈액원은 겨울철이면 한파·방학으로 헌혈자가 줄어드는 데다 독감까지 확산하면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시 49주차 기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은 25~26절기 59.7명으로 24~25절기 12.5명 대비 47.2명이 급증했다. 이는 약 377.6% 증가한 수치다.

독감에 걸린 경우 완치 후 한 달이 지나야 헌혈을 할 수 있다. 독감 증상이 있거나 종합감기약을 복용한 경우 당일 헌혈에 참여할 수 없다. 겨울철 혈액 수급이 어려운 이유다.

전공의 복귀 이후 대학병원의 수술도 늘면서 혈액 수급도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저출산과 고령화로 헌혈이 가능한 10대 헌혈자 수가 10년 전보다 절반으로 줄어든 점도 원활한 혈액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혈액원 관계자는 "겨울철 독감과 수술 증가 등 내년에도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혈에 대한 많은 시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오는 29일부터 지역 헌혈의집과 헌혈버스에서 헌혈자 3만3000명을 목표로 '70일간 사랑의 헌혈 릴레이'를 진행한다.

/송현근 기자

전남 학교폭력 5년 새 두배... 엔데믹 대면수업에 '급증'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대면 교육이 본격화되면서 전남지역 학교폭력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확산으로 비대면 교육이 이뤄지던 5년 전보다 학교폭력 검거 인원은 두 배 이상 늘었고, 초등학생 가해자 증가가 두드러졌다.

21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남지역 학교폭력 검거 인원은 ▲2020년 458명 ▲2021년 621명 ▲2022년 554명 ▲2023년 649명 ▲2024년 927명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등교 수업이 제한됐던 2020년과 비교해 최근 5년 만에 102% 급증한 것이다.

올해는 1월부터 11월 말까지 779명이 검거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3% 줄어든 것이지만, 코로나 확산 당시보다는 여전히 많다.

학교폭력은 코로나 시기 비대면 수업 확산과 외부 활동 감소로 한때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으나, 엔데믹 이후 등교 수업과 대면 활동이 정상화되면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유형별로는 협박 증가세가 가장 가팔랐다. 협박 검거 인원은 2020년 25명에서

2024년 64명으로 156% 늘었다. 폭력은 같은 기간 222명에서 487명으로 119% 증가했고, 갈취 역시 39명에서 80명으로 105% 늘었다. 단순 다툼을 넘어 위협이나 금품 요구를 동반한 학교폭력이 뚜렷하게 늘었다. 성폭력 검거 인원은 2020년 112명에서 2024년 188명으로 68% 증가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 가해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초등학생 학교폭력 검거 인원은 2020년 15명에서 2024년 97명으로 5배 넘게 급증했다.

같은 기간 중학생은 122명에서 268명으로, 고등학생은 119명에서 254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학교 밖 청소년은 90명에서 69명으로 감소해, 대면 수업

정상화 이후 학교 안에서의 폭력 노출이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학교폭력이 발생한 장소를 보면 학교 안이 175건(38.6%)으로 가장 많았고, 노상인 74건(16.3%)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 주택가·아파트 38건(8.4%), PC방·노래방 34건(7.5%), 상가 밀집지역·식당·카페 34건(7.5%), 공원·공터 27건(6.0%), 놀이터 25건(5.5%), 기타 25건(5.5%), 온라인 14건(3.1%), 장소 불명확 7건(1.5%) 등 순이었다.

학교폭력은 교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지만, 노상과 주택가 등 학교 밖 공간에서도 적지 않게 발생했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어 비대면·사이버 폭력도 여전했다.

위원은 "패밀리랜드는 단순 놀이공원이 아니라 시민의 휴식과 도시의 품격을 함께 높이는 공공자산"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패밀리랜드가 시민 속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 때 연간 100만 명이 찾던 호남권 대표 명소였던 패밀리랜드는 금호그룹이 손을 떼 2013년부터 현재까지 광주패밀리랜드㈜가 위탁 운영 중이며, 내년 6월 사업자 위탁 기간이 만료된다.

/오권철 기자

광양시의회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백지화하라"

"수도권 전력 수요 위한 일방적 희생 강요"

전남 광양시의회가 19일 시를 관통하는 송전 선로 건설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했다.

광양시의회는 이날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건설지사가 추진 중인 '광양시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수도권에 대규모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호남권에서 생산된 전기를 장거리 송전하려는 국책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제10·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광양·순천 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존 전력계통 과부하 해소를 이유로, 광양~신강진, 광양~신정수, 광양~세풍, 세풍~순천 등 4개 구간에 송전선로를 신설·증설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광양~신강진 구간은 기존 선로를 철거한 뒤 추가 선로를 설치하는 방식이며, 나머지 3개 구간은 신규 송전선로

건설 계획이다.

광양시의회는 이에 대해 "광양시는 이미 300여 개의 송전탑이 설치돼 있고, 광양변전소 인근에는 수십 개의 송전탑이 밀집해 있다"며 "그동안 시민들은 건강과 안전에 대한 불안, 생활권 침해 등 막대한 고통을 감내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초고압 송전선로를 추가 건설하는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지역 환경과 생태계를 돌이킬 수 없이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광양시의회는 이어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현실 속에서 수도권 발전을 위해 혐오시설을 지방에 떠넘기는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며, 국가적 과제인 지역 균형 발전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광양시의회는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선로 건설사업 계획 즉각 폐기 및 전면 재검토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한 합리적 대안 마련 ▲송전선로 지중화 등 지역 피해 최소화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